광주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본격 추진

전시·연구·교육 융복합센터
2020년까지 구동에 조성
市, 주민 대상 설명회 열어

광주시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미디어아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AMT(Art Media Technology)는 미디어아트 관련 예술과 기술 자료를 수집·전시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와 교육 등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융·복합센터를 말한다.

광주시는 20일 "광주문화재단 2층에서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미디어아트 전문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사업' 현장설명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용역업체인 도시문화집단CS 정성구 박사가 사업 추진배경과 기본구상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또 사업설명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미디어놀이터, 홀로그램 극장 등 미디어아트 플랫폼 시설을 관람하며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AMT센터는 시민부터 예술인, 전문가, 행정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한 곳에서 교류·협업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될 것이다"며 "새로운 미래 경쟁력을 탄생시킬 수 있는 플랫폼인 AMT센터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12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분야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기획재정부 적격성 심사를 거쳐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AMT 건립 투자심사 승인과 함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는 등 플랫폼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총 사업비는 290억원(국비145억·시비145억원)으로 2020년까지 광주 남구 구동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 공원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2층의 연면적 3000㎡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AMT센터에는 미디어아트박물관, 기획전시실은 물론 세계인과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첨단 체험공간 지오펄스와 텔레포트룸,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공유하는 미디어아트 살롱, 청년창업 공간 등이 마련된다.

또 4547㎡의 외부 공간은 미디어아트 창의파크로 조성, 원도심의 새로운 명소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하공간은 약 150대 규모의 주차장으로 조성해 지역민과 방문객이 이용하도록 한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3월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해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원탁회의 23일 개최

광주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3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지속가능한 100년 광주' 실현을 위한 시민, 기업, 행정,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버넌스(협치)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원탁회의는 지난 2015년 U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환경, 경제, 사회, 도시재생 등 4개 부문에 대해 광주가 오는 2021년까지 이행할 17개 의제를 분과별로 토론하는 자리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 제5차 의제는 지난 1997년 최초로 의제가 작성된 이후 매 5년 단위로 의제를 실천하고 평가해 재작성하게 된다. 또 매년 의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실천사업의 방향을 수정한다.

광주 5차 의제의 17개 소의제는 ▲맑은 물이 흐르는 물순환 도시 ▲앞산뒷산이 함께하는 도시숲 ▲바람길이 통하는 시원한 도시 등이다. 올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5차 의제를 실천하기 위해 실천사업 공모를 했으며, 이에 따라 (사)광주전남녹색연합의 시민이 만드는 물순환 도시 광주 사업 등 총 25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올해는 5차 의제 5개년 일정의 2년차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제 실천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며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광주의 지속가능성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역자치단체 고충처리 평가
광주시 최우수기관 선정

광주시가 '2017년도 고충민원처리 실태 확인조사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충민원처리 실태 확인조사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고충민원의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 민원인 ARS조사를 거쳐 진행됐다.

광주시는 평가에서 ▲고충민원 해결률 ▲집단갈등민원 해결률 ▲고충민원 처리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률 등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등급에 해당하는 94.7점을 받았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의 집단화, 갈등 심화 양상 등에 대비해 고충민원의 처리 역량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해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나카드 고객센터 광주 유치 광주시와 하나카드㈜는 20일 시청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센터 유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하나카드는 광주에 고객센터를 신설하고, 올해 24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광주시 제공〉

북구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3월5일~9일 신청 접수

광주시 북구가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북구는 "다음달 9일까지 '2018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을 이끌어 갈 기관·단체, 주민모임 및 학습동아리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주민의 학습만족도를 높이고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총 사업비 1억4700만원을 투입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인생배움터 무릎학교 ▲찾아가는 배달강좌 ▲학습동아리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을 공모한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소외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과 학습형 일자리 발굴 및 취·창업 과정 등 특색있는 사업 위주로 10개 내외 사업을 선정하고 각 사업별로 200만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한다.

북구의 특성화사업인 '2018 인생배움터 무릎학교'는 행복학습센터를 거점으로 배움을 환원하는 플랫폼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을인문 ▲솜씨 ▲골목 ▲마을예술 캠퍼스 등 4개 분야 사업을 공모한다. 각 센터별로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찾아가는 배달강좌'는 학습기관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10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소모임이라면 언제든지 편한 장소에서 캘리그라피, 미술치료, 요가 등 각종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2018년 1월말 기준 평생학습관에 승인된 동아리 중 학습나눔운동형 및 역량강화형 등 총 20개 내외 동아리에 대해 학습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3월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170)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edu.bukgu.gwangju.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각화문화의집 위탁단체 공모

광주시는 20일 "청소년시설 2곳을 운영할 민간위탁 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오는 7월과 11월 문을 열 예정인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각화청소년문화의집이다. 복지원시설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문을 여는 시설이다.

소년법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해 주거와 상담, 학업, 자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의 집은 북구 시화 문화마을 내 금봉미술관 부지에 들어서는 문화와 예술, 취미 중심의 청소년수련활동공간이다.

위탁 운영 기간은 각 3년이며 자격은 3년 이상 청소년 활동과 복지, 보호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다.

오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운영단체를 사전에 선정해 시설 설계 단계부터 운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개관과 동시에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구 아시아음식전문점 3월30일까지 2차 공모

광주시 동구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의 하나로 아시아음식전문점 2차 유치에 나선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구시청 일원에 조성중인 아시아음식문화지구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남도음식뿐만 아니라 각국의 음식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차 모집은 다음달 30일까지며, 모집규모는 12개 점포 내외로 아시아음식에 대한 아이템과 창업의 열정을 가진 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에게는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최대 5000만원의 창업비용과 창업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광주은행 창업자금 특별대출 등을 지원한다. 또 건물주와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통해 최소 3년간 임차료를 동결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동구청 문화관광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park232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08-241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북구, 오늘 교복 2000여점 나눔 장터

광주시 북구가 신학기를 앞두고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2018 교복 나눔 장터'를 연다.

이번 행사를 위해 북구는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교복, 체육복 및 책가방 등을 해당 동 주민센터나 북구새마을부녀회 등에서 기증받았다. 현재 2000여점이 기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교복, 재킷, 책가방 등을 행사기간 동안 무료로 교환 하거나 교복 상·하의 낱개는 2000원, 재킷(코트)과 책가방은 각각 5000원에 판매한다.

교복 외에도 지역 업체로부터 후원 받은 실내화, 문구류 등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주민자치과(062-410-6174)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장기투자 최적**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거문도,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음**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음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

주인직매 H.010-3605-5000